

# 브라질 기행

## - 고난 속에 영그는 진보의 희망 -

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금수 이사장님과 민주노총의 김유선 정책국장, 운영모 국제부장과 함께 11월 14일부터 10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한국의 민주노총, 남아공의 코사투, 브라질의 쿠틀 등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3국 노동조합간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모임이었으며 한국과 남아공에 이어 3번째로 브라질에서 개최 되었다.

### 오길성

전국민주화학생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불황과 인플레이의 상흔들

11월 14일 저녁에 출발한 비행기는 미국 LA에 한시간의 중간 기착을 갖고 계속 날아서 26시간만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5년전 전노협 사무총장 시절 방문한 경험이 있어 낯설지만은 않았다. 한국의 정반대편인 상파울루는 서울과 12시간의 시차가 있어 한국의 저녁은 이곳의 아침이고 계절도 정반대로 초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60-70년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브라질의 거리는 경제발전으로 변창했던 시절, 옛날의 영화를 대변하듯 조각이 어우러진 고층빌딩들이 문명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같이 색칠을 하지 않아 까맣게 이끼진 모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건물의 외벽은 온통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담요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는 걸인들의 모습은 거리의 풍경과 어울려 오히려 자연

스럽게 보이기까지 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에서 부유층들은 값비싼 명크로트를 사놓고도 따뜻한 날씨 때문에 입시를 못해 그걸 입으려고 해외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들은 1988년 이후 누적되어온 경제분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 때문에 물가와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못하고, 상점마다 실판을 걸어 매일매일 가격을 기록할 정도였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했다. 하루만 지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율이 1,000%에 달했다니 벽지를 사서 도배하기보다는 돈으로 도배하는게 더 싸게 먹힌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척결을 구호로 당선된 콜로르 대통령은 뇌물수수 부정혐의로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권좌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이후 노동자들은 파업투쟁 등을 통해 물가인동 임금인상제도를 수립케 하는 등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새 집권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다시 분황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물가인동 임금제마저 폐지에 버렸다. 특히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패턴과 IMF 관리체제의 도래를 맞으면서 브라질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 고통속에서도 불타는 정열

도착 당일인 일요일에는 에너지노동조합의 통합 결의 대회가 있었다. 소속 노동이 다른 지역산별단위 노조들이 모여 더 큰 단위의 지역산별단위노조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간 몇 년간의 공동사업을 통해 마침내 통합을 이뤄낸 것이다. 결의대회 분위기는 마치 축제를 치무내는 듯했다. 대형버스를 타고 온 노동자들은 지역별로 프랑카드를 내걸면서 속속 입장했고, 입구에서는 가입원서를 쓰기 위해 노동자들이 길다란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행사장은 은행노조 소유의 실내 체육관에는 색색깔의 풍선이 무더기로 걸려있었고 한편에서는 통돼지 바비큐 요리를 하느라 자욱한 연기가 행사장을 감싸고 있었다. 개회가 선언되고 조직의 대표와 초청자들이 하나씩 호명되어 박수 갈채속에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때 한 대표가 딸인듯 어린 꼬마를 안고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다. 많은 인사들이 나와 정치 연설을 마치고 행사가 끝나자, 행사장에는 곧바로 경쾌한 음악이 흘러 나왔고 곧이어 고기와 술이 나오는 파티장으로 변했다. 여기 저기서 사람들이 몸을 흔들기 시작 하였다.

경제불황에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수십배나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륙의 기질을 보여주듯 호방하고 정열적이었다.

## 콜라, 순진함과 기백의 노동자

노동자당(PIT)을 방문한다고 해서 콜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섰다.

92년 방문 때는 노동자당의 신문과 기념품을 파는 기관대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지금은 별로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시장선거에서 패배해서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은 많은 주와 시에서 노동자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

“행복해 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말라”는 구호는 콜라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기를 바라면서 내걸었던 선거 슬로건이었다. 콜라는 자동차공장의 노동자이면서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89년과 94년 두차례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결선까지 가는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심권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콜라는 현재도 노동자당 명예총재로 건재하고 있었고, 대화중에도 린넨티 샤프 차림에 복에 건 목걸이를 얼굴 위로 올려놓는 등 순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 투쟁으로 단련된 노동자다운 풍모였다.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을 던져 보았다. 브라질이 부정부패와 경제불황,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에 출마하여 3%차로 낙선하였는데 그 원인과 자기를 지지한 계층들이 어렸는지에 대해서였다. 그의 대답은 TV와 언론매체들이 노동

자당의 진보성향에 대한 우려와 흡집잡기에 열중하면서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보도해 주지 않았던 것과, 문맹률이 높은 하층계급의 낮은 정치의식이 이를 따르지 못했던 점을 이야기했다. 콜라는 노동자당이 철저하게 의식, 조직화된 진보적인 중산층과 조직화된 노동자 조직에 의해 선거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했다. 헤어지면서 콜라에게 사진찍기를 제안했는데,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님이 브라질에 가서 콜라를 만나지 않고는 돌아오지 말라는 농을 했었기에 정표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콜라는 가슴으로 안아 포옹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깊은 인상을 남기 주었다.

## 조합세 제도의 질곡을 넘어

도시의 거리는 많은 인파로 물결쳤고 한 공원에는 프랑크트를 들고 노래와 구호를 연호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텔레비 방송과 신문기자들이 이를 취재하고 있어 알아본즉 브라질의 한 프로 축구팀이 징계를 받고 출전금지 처당하자 지지팬들이 거리에 모여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날 그 기사가 상파울루 신문의 1면头条으로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걸 보았다.

이들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노동조합과 공장 현장방문이 있었다.

브라질의 노조 조직형태는 지역산별 단일노조이다. 행정단위와 공업지역을 중심

으로 노조를 건설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 한 지역에 동일산업의 노조는 먼저 건설된 하나의 산별조직만이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단위의 산업별노조가 모여 주단위의 산업별 연맹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 연맹은 전국적 산별연맹을 건설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에는 지역 단위노조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며, 지역단위노조의 집행부 선거 결과에 따라 상급단체가 바뀌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시단위의 단위노조끼리 통합해서 주단위의 통합노조를 만들 수 있으나 그 주안에 있는 산별단위노조 모두가 찬성을 해야만 주단위 단일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등록하고 노동자 수첩을 발급 받는데, 이 또한 노동자블랙리스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일년에 한번 하루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노조세를 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조합비, 비조합원들은 교섭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노조세를 노동부가 분배하는데 단위노조에 60%, 그위 상급단체에 15%, 그위 상급연맹에 5%를 분배하고 나머지 20%는 노동부에서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용노조는 노조세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사용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조합에 가입시키는 조직확대 사업을 기피한다고 한다.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쿠틀은 이렇듯 노조세로 의회 조직의 부패를 막기위해 노조세 납부제도를 폐지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노조세 되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브라질은 임금교섭을 일년에 한차례 갖는데, 지역의 노동조합과 지역 산업별 사용자 대표간에 교섭이 이뤄지고 있으며 법으로 한달이란 교섭기간이 정해져 있다. 더구나 노동관계법에는 각 단위노조마다 각기 다른 교섭시기가 정해져 있어 다른 노조와 행동통일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달이란 교섭시기가 넘어가면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게되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따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주들은 가능한 노동법원으로 끌고 간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대표와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지역의 전략사업장을 지정해 사업장간 개별교섭을 진행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교섭이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 대표들은 불기안상에 훨씬 못미친 안을 내놓고 반을 깎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기 일쑤다. 브라질 노동법에는 해고를 규제하는 법적 보호제도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파업이라는 투쟁수단을 행사할 때는 선중환 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간 부라거나 정치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노조활동과 정치활동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 간부가 선출되면 지역단위노조로 파견이 되는데 노조전임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위 사업장 조직의 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사업장의 출입문체도 조직화된 힘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조직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차량에 스피커를 달고 정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신전물을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빗대어 공장밖노조 또는 공장정문노조라고 말한다.

지역의 산별단위노조는 각기 독자적인 노동조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신용협동조합처럼 접수대가 있어,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고 노조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뱃지, 옷, 책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판매대가 진열되어 있었다. ABC금속노조는 매일 노조신문을 발행하는데 저녁에는 윌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벤츠자동차 식당출입구에 놓인 신문을 노동자들이 헌부씩 집어가는 장면을 나중에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금속노동자수는 12만명에 조합원수는 9만2천명이었는데 현재 8만4천명으로 줄어들어 노동조합 재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150여명의 직원을 감원해야할 상황이라고 했다.

## 공장과 현장으로 들어가다

벤츠자동차를 방문하였을 때 공장평의회 대표와 회사측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순회할 수 있었다. 평의회 대표는 노동조합 대표이기도 하며 평의회 사무실

에서 진임을 하고 있었다.

평의회는 노조의 조직과는 관계없이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고 현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 평의회 사무실이 노조 사무실화 되어 있었고 평의회 위원들도 낮과 밤으로 교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평의회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이 또한 현장 조직력에 의해 회사와의 교섭과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장에 평의회가 없는 곳도 있다. 벤츠자동차의 평의회는 1985년 투쟁의 실패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아무튼 공장평의회 조직은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을 결합시키는 주요한 기점이기에 투쟁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현장을 돌던 노조간부가 휘파람 소리를 내어, 일하던 조합원과 눈을 맞추면 서로 엄지손가락을 수켜 세워 "따봉"이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간다. 따봉이란 "좋다, 최고"라는 인사말인데, 한국에서는 캔 음료의 광고멘트로 사용되기도 한 탓에 친숙하게 들었다. 그분들에게 한술 더 떠 한국의 "따따봉"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다. 벤츠자동차공장 현장에서 전국중앙조직인 쿼트 위원장의 아들이 기름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해 인사를 나눴다. 젊은 청년인 그는 자동차공장 노동자이면서 공장평의회 위원이었다. 벤츠자동차도 이곳의 불황에 대처해 평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연말 바수기에는 집단 휴가를

주고 있었다. 우리는 점심을 공장식당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식당 출입구에는 한국의 지하철 표널은 곳곳에 여러 개의 입구가 있어 카드를 읽히고 들어갈 수 있었다. 넓은 식당은 두 개로 나뉘져 있었는데, 한쪽은 레스토랑 같고 다른 한쪽은 일반 식당으로 구분되어 예전 한국의 회사 식당처럼 관리직과 생산직의 차별을 보는 것 같았다.

은행노조가 있는 변화가 골목골목에는 피켓을 들거나 세일이라고 쓴 폼뱃보를 입고 거리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버스회수권, 급식권, 복권 등을 사다 파는 사람들이었다. 길거리 인도마다 드러누워있는 거리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판자집도 구할 수 없어 다리 밑에서 생활하거나 그냥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구제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곳의 은행노조는 쿠트 내에서 금속노조 못지 않은 핵심 조직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특히 학생운동층으로부터 의식, 조직화된 주요 동력을 흡수해서 배출하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 노동자당의 희망과 고민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요 공업도시인 산투 안드라데 시청을 방문하였다. 시장실 입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기위한 쿠트의 집회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시장은 출정중이어서 금속노조위원장 출신인 부시장이 우리를 맞이하여 이 지역

의 화학과 금속 등 기간사업의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었다. 노동자당이 집권하는 시에 대해서는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자체의 채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여러 시들이 서로 자기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를 낮춰주겠다고 하는 등 투자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도시개발법이나 환경개발법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고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변의 시들이 자동차 업체에 대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쟁적으로 새공장을 깎아주는 등 공장 유치가 나시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자동차 공장이 이전을 하면 본공장의 100km이내에 부품공장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다른 부품공장들이 대기 이동함으로써 이 지역의 5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에 주변의 7개의 시들이 모여 노·사·시민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30개의 노조 중 쿠트에 소속한 노조가 95%에 달한다. 개발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와 사무국, 18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고용소위원회와 도시계획및환경소위, 사회발전개발소위, 행정조세소위 등등으로 나뉘져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 한국의 경제불황과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구성할 때 지역차원에서는 브라질의 지역개발 협의회 모델을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